

발간사

지금 우리는 20세기를 결산하고 21세기를 맞아야 할 역사적인 시점에 서 있습니다. 이러한 역사적인 시점에서 21세기에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됩니다. 통일시대의 전개, 세계화의 과제, 정보화 시대의 구현 등등 많은 것을 열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 중에서도 우리는 흔히들 다가오는 21세기를 환경의 세기라고 부릅니다.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고 환경과 관련된 과제가 많다는 의미일 것입니다. 이러한 역사적 시점에서 한국환경법학회가 환경법연구를 제21권째 출간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.

돌이켜 보건데 한국환경법학회는 환경의식이 활무지였던 1977년에 창립되었고, 1979년에 환경법연구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이제 세기를 넘어 환경법연구 21권을 발간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

환경법연구 제21권이 발간될 때까지 많은 분들의 물심양면의 지원과 협조가 있었음을 밝혀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이상규 명예회장님을 비롯하여 서원우, 전창조, 김이열, 오석락, 구연창, 박윤흔, 김철용, 김원주, 김형철 고문님들의 업적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그 밖에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역대 총무이사와 연구이사를 비롯한 상임이사님들과 이사님들, 감사님들의 협력과 관심에 대한 감사의 말씀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바쁘신 중에도 옥고를 짊질하여 주신 짊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
끝으로 21세기에도 한국환경법학회의 꾸준한 발전과 회원님 여러분들의 건안을 기원합니다.

1999년 12월 27일

회장 김영훈